

# 특목고·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희망학교부터 일반고로 전환...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키로

교육부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중 희망 학교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이 허용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고입 전형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새 정부서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이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한 후 이에 대해 2시간 가량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교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교육부는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 입시 경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선발 시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입 전형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져 이뤄진다. 학생들은 전기에 특목고·자사고를, 후기에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는 전기 탈락자들과 미지원자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고 지원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중 희망학교부터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시에 폐지하면 전국 외고와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의 거



호송차로 향하는 원세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피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센 반발 등에 부딪혀 자칫 교육개혁이 빠

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사고와 외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 서열화 등을 야기했고 입시 명문고로 변질돼 교육과정의 자율과 다양성과 외국어 인재 양성이란 설립 취지가 흐려졌다며 자사고·외고 폐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자사고·외고 폐지는 획일적 평등화에 집착한 나머지 교육 수준을 강제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협회가 요구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해

적용한 후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미래직업교육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내년 5월 중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뉴스1



조준제 주미대사 노영민 주중대사 이수훈 주일대사

## 文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조준제 주중대사 노영민·주일대사 이수훈

문재인 정부 초대 주(駐)미대사에 조준제(65)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이 내정됐다. 주중대사에는 노영민(60)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일대사에는 이수훈(63)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미국·중국·일본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내정하고 당사국의 대사 임명동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해당국가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일주일 정도 후에 답신이 오면 공식 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조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충북 청주 출신의 노 내정자는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3선 국회의원(17·18·19대)으로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후근 인사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고, 새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력히 거론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앨라배마대학교 존스홉킨스대에서 사회학으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스1

## 민주당 도당 여성위, 9월1일 핵심당원 교육연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은희)는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동안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핵심 여성당원 교육연수를 갖는다.

여성위원회는 이번 교육연수를 통해 각종 도당 위원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중심을 잡아 지방선거 승리에 선도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참석대상은 민주당 여성위원과 여성당직자 및 당원 300여 명이다.

교육내용은 ▲지방자치 지방의회 ▲인문학 강의 ▲이미지 메이킹과 스피치 ▲여성이어 도전하라 등이며 정치, 교육계 각 분야 전문가가 강의에 나선다.

아울러 전북 여성정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이번 교육연수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 초석이 되고 여성 당직자로서 바람직한 여성 정치 발전 방안을 생각해 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내달 1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 제안

### 지방선거기획단 첫 회의 개최... 사고당 조속한 정비도 최고위에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다음달 1일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시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관 입각, 청와대 파견 등으로 인한 사고당(지역위원회) 공석인 지역위원회)의 조속한 정비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해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단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과 지역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선출직 평가위와 공천 공정성을 위해 권위된 시도당 위원장은 조속히 정비하도록 이번 주 내 최고위에 제안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백 대변인은 "평가기준과 방법은 중앙당 평가위에서 정해서 최고위 의견을 거쳐 정한다"고 설명했다.

사고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꼭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에서 조속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 최고위에 제안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공천들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당헌·당규상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 비율이 50% 이하로 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대표도 그부분에 대해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경할 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기획단을 꾸려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해석,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기획단 단장에는 3선의 이춘석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뉴스1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